



미국 모기지 금융회사들, 고금리 단기예금상품 판매 확대

최근 미국에서는 대형 모기지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 증대 여파로 인해 담보증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나 저축예금 등 산하 은행 사업부의 고금리 단기예금상품 판매를 통해 신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Countrywide Financial이나 Capital One Financial 등 대형 모기지 금융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산하 은행을 통한 고금리 단기예금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모기지 자회사를 보유한 은행들도 금리 인하 추세에 있는 여타 은행들과 달리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고객 유치 및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예금자나 신규 고객 입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금융시장 변화 및 연방준비이사회(FRB)의 금리정책 향방과 맞물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보유자산 운용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상기 모기지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 증대로 인해 담보증권 발행이나 기업어음시장 (commercial paper market) 등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투자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감안하여 고금리 예금상품 판매를 통해 신규 대출 재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단기국채의 가격 상승(수익률 하락)을 반영하여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이들 회사들은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금조달 확대를 통해 보다 엄격해진 대출 기준 적용으로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은 물론 점보론(jumbo loan: 41만 7,000달러 상회 프라임모기지) 제공을 확대함.
- 올해 8월 들어 대형 모기지회사인 IndyMac Bancorp 산하의 IndyMack Bank를 위시하여 Capital One Financial, Washington Mutual, Countrywide Financial 산하의 Country Bank 등 다수의 모기지회사들이 1년 이하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저축예금(Savings Account)에 대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적용 금리를 잇따라 인상함.
 - 이들 금리는 단기예금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점포망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전통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은행 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음.
 -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8월 22일 Bank of America로부터 지분출자 형태의 자금 지



원을 받기로 한 미국 최대 모기지회사인 Countrywide Financial이 온라인 저축예금인 SavingsLink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적용 금리를 기존의 5.25~5.40%에서 5.5%로 인상하고, 1년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적용 금리 역시 5.65%까지 인상함.

- 온라인 금융정보 사이트인뱅크레이트닷컴(Bankrate.com)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6개월, 1년 및 5년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금리는 각각 3.55%, 3.75%, 4.03%로 올해 들어 연방준비이사회가 단기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으나, 각 은행들 입장에서는 시장변동성 증대 및 경쟁 여건 변화, 자금수요 등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표〉 미국 은행들의 단기 CD 및 저축예금 상품 비교

은행명	예금상품	비고
AmTrust Direct	6개월 만기 CD: 5.36% 1년 만기 CD: 5.31% e-Money Market: 5.31%	온라인은행
Capital One	6개월 만기 CD: 5.00% 1년 만기 CD: 5.0% High Yield Money Market: 5.00%	
Citibank	6개월 만기 CD: 4.75% 1년 만기 CD: 4.2% e-Savings Account: 4.25%	
Countrywide Bank	6개월 만기 CD: 5.50% 1년 만기 CD: 5.65% SavingsLink Account: 5.50%	잔액 1만 달러 이상
IndyMack Bank	6개월 만기 CD: 5.25% 1년 만기 CD: 5.50% Internet First Rate Money Market: 5.75%	온라인금리, 잔액 2만 5,000달러 이상
ING Direct	6개월 만기 CD: 5.15% 1년 만기 CD: 5.15% Orange Savings Account: 4.5%	온라인은행
Washington Mutual	6개월 만기 CD: 5.50% 1년 만기 CD: 5.10% Online Savings Account: 5.00%	온라인금리

자료: 각 금융회사 사이트

- 이러한 공격적인 경영전략에도 불구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마진 축소나 대손충당금 증액이 초래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원금 보장을 받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예금보증 한도 내에서 여러 은행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거나 개인퇴직계좌(IRA) 및 공동계좌(Joint Account), 변경가능신탁계좌(Revocable Trust Account) 등 다양한 저축계좌 활용이 제안되고 있음.
-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고객별로 개별 은행당 10만 달러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고 있음.